

사순 제3주일

제1독서 : 출애 3,1-8ac.13-15

제2독서 : 1고린 10,1-6,10-12

복음 : 루가 13,1-9

숲 정 이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1고린 10,12)

강 련

실로암 탑과 성수대교

송영진 신부/나운동 천주교회

“실로암 탑이 무너질 때 깔려죽은 열여덟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들인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이 귀절을 이렇게 바꿔서 읽어봅시다.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한강에 떨어져 죽은 설흔두 명은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들인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하느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아무도 회개와 보속을 면제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다리가 무너지고, 배가 불타고, 가스기지가 폭발할 때마다, 그저 “우리 다 함께 회개합시다”라는 한 마디 말로, 자기 가슴만 몇 번 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면,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의 책임도 물을 줄 알아야 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이웃사랑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란 “내 탓이오”라는 한 마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멜리로는 12.12와 5.18, 가까이로는 최근의 대형참사들까지, 도대체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카인에게, 하느님께서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피가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하느님께서 진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그 자비는 정의를 바탕으로 한 자비입니다.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한 기복신앙으로서의 회개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이 땅의 불의와 부정부패와 무책임함과 온갖 악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의 실천이 따르는 회개이어야 합니다.

소 리

올바른 삶을 생각하며

무슨 일이건 결과가 있으면 그 앞에 과정이란 게 있다. 처음의 계획과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결과가 올바른 하나를 이룰 때 결과는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불순한 의도와 그릇된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보노라면 정직과 거짓의 한계가 과연 있는지 궁금하다. 특히 국민들 앞에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더욱 그러하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정은 도외시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모두가 정당하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주위의 시선을 안중에 두지 않는 태도는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과 욕심을 위해서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서슴없이 된다. 온 나라가 물 걱정이어도 책임질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하늘이 알아서 해주겠지”하며 관심 밖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회 각처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말은 그럴 듯하게 하지만 뒤집어 보면 금방 거짓과 허위임이 드러나는 일이 허다하다. 분명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은 이렇게 비춰지는 것인가.

세상은 혼자만 사는 곳이 아니다. 가족과 이웃과 사회 속에서 부대끼며 땀을 나누며 사는 곳이다. 자신만을 위해, 자신의 권세와 명예만을 위해 사는 것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잊지 않고 어려운 사람의 고통을 들어 주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고있는지 반성의 시간을 갖자.

그리고 말로만 그럴 듯하게 치장하지 말고, 몸과 마음이 함께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자. **ㅁ**

숲 정 이 산책



성서교실 51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창세 37, 12-37)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100km나 되는 거리는 요셉에게 결코 쉬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요셉은 기꺼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들인다. 요셉이 세겜까지 왔으나 형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세겜의 들판을 헤메다가 요셉은 그 지방 사람을 만나 형들과 그들이 치는 양떼의 행방을 묻자 그 사람은 형들이 도다인으로 가자는 말을 했다고 알려 준다. 도다인은 세겜에서 다시 30km 떨어진 곳이다. 이렇게 형들을 찾은 요셉이 반갑게 다가가는데 형들은 그를 죽일 궁리를 한다. 그를 죽여 아무 웅덩이에 던져 넣고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아버지께 보고하자는 음모를 꾸민다. 이 웅덩이는 우기인 겨울철엔 물이 고여 있다가 건기인 여름이 끝나 갈 무렵엔 완전히 말라붙는 곳이다.

동생들의 말을 듣고 있던 만형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을 죽이지 않고 나중에 아버지께 돌려드릴 생각에서 “피만은 흘리지 말아라”고 충고한다. 만형으로서 다른 형제들, 그 중에서도 특히 나이 어린 형제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 앞에서 져야 했기 때문이다. 르우벤의 말을 듣고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처넣고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스마엘인들은 아브라함의 소실 하갈의 아들로서 바란 사막에서 살기 시작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다. 이 상인들은 향료의 산지로 유명한 길르앗 산악 지대에서 널 평야로 내려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구덩이 곁을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이 형제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요셉을 발견하고 그를 꺾어 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온 20냥을 받고 팔아 넘긴다. 레위기 27장 5절에 보면 5세에서 20세에 이르는 남자의 몸값은 20 세겜로 되어 있다. 요셉을 산 이스마엘 사람들은 그를 에집트로 끌고 간다. 그런데 이야기의 맨 마지막 대목에 보면 요셉을 에집트까지 끌고간 상인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로 되어 있다. 서로 다른 두 그룹의 저자들이 이야기를 엮어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야훼스트는 이 집안 가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고 요셉이 살아 남은 공을 유다에게 돌리며 이스마엘 상인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엘로히스트는 꿈 이야기를 들여 오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고수하며 르우벤의 개입과 미디안 상인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아무 영문도 모르는 르우벤은 요셉을 가둔 구덩이에 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파는 형제들의 모습

보고 그가 없어진 것을 알자 옷을 찢으며 슬퍼한다. 옷을 찢는 행위는 커다란 고통을 의미하고 장례 때의 한 예식이기도 하다. 르우벤은 “그 애가 없어졌으니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슬피 부르짖는다. 동생들에 대해 책임을 만형으로서 아버지가 아끼는 동생을 잃어 버리고 어떻게 그 앞에 나타나겠느냐는 것이다. 사실 그의 제안에 따라 요셉을 구덩이에 처넣었으니 직접적인 책임도 자신이 져야 할 형편이었다. 형제들은 원래의 공모대로 요셉이 맹수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꾸민다. 그래서 편애의 상징인 요셉의 장신구 달린 옷에 염소의 피를 묻히고 사람을 시켜 그것을 아버지께 보냈다. 야곱은 이 옷을 받자마자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으로 확신하고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친 채 슬피 통곡한다. 집에 남은 그의 딸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마다하였다. 야곱은 죽음의 나라 세울로 가는 황천길을 요셉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한편 에집트로 팔려 간 요셉은 파라오의 신하인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다시 팔린다. 보디발이라는 이름은 에집트의 태양신 ‘레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과의 이야기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르우벤의 책임 있는 태도이다. 다른 형제들을 설득하여 요셉을 구출하려다 실패한 그가 자기 옷을 찢으며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슬피 통곡하는 장면에서 미운 동생이지만 넓은 마음으로 품어 주고 보살펴 주려는 형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엿볼 수 있다. 동일한 운명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형제요 자매들이다.

성운 예식장
 · 한·홀에 하루 2쌍만을 탄생시키는
 여유로운 예식 · 예식과 피로연이 동
 일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곳
 · 편리한 대형 주차시설
 임 정 옥(사비나)
 어은터널 앞
 ☎ 224-8048

LG(금성)에어콘 총판
 에어컨,향온항습기,공기정화기,온풍
 기,대형냉장고,중앙집중식 냉난방
 원 증 삼(발라바)
 원 승 연(도밍고)
 삼화공조 ☎(0652)251-0190-2
 FAX.(0652)251-0192

월드 카메라
 각종 카메라 판매 · 수리
 필름 현상 · 인화
 유 석 영(미카엘)
 전동백화점 5층
 ☎ 232-0114

영창피아노 전주중앙대리점
 · 36개월 할부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 A/S 전문점
 전 상 진(베드로)
 유 명 숙(요안나)
 다가동 파출소 옆
 ☎ 84-6085, 223-5823

교리상식⑱

성 요셉 성월

교회는 어느 달을 정하여 신심이나 덕을 쌓기로 노력하는데 그 달을 성월(聖月)이라 한다. 3월은 성 요셉 성월이다. 해마다 여섯 번의 성월이 있는데 그 중 첫번째로 맞는 성월이다. 성 요셉은 성모 마리아의 배필이요, 예수님의 양부(養父)이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고 성모 마리아는 그 어머니로서 떠받들고 공경하여 왔는데 성 요셉은 뒷전에 밀려 빛을 잃고 있었다.

성 요셉에 대한 공경은 12세기경 서구에서 처음으로 3월 19일에 공적으로 공경을 하다가 15세기에 전체 교회에 확산되었다. 교황 그레고리오 15세(1621년)는 이날을 정식 축일로 결정하였고, 1870년 교황 비오 9세는 성 요셉을 성교회의 수호자로 선언하였다. 3월 19일을 정한 뚜렷한 근거는 없다. 교황 비오 12세는 1955년 5월 1일 '노동자 성요셉' 기념 축일을 덧붙여 선포하였다.

요셉(Joseph)의 본뜻은 '하느님이 돕다' 즉 '돕는 사람'이다. 요셉의 일생은 성실한 돕는 이였다. 첫째 정결한 남편으로서 동정을 원하는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 마리아의 평생 동정을 보호하고 지켜 주었다. 자기 희생과 봉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둘째 성실한 아버지로서, 예수님의 양부로서 자기 임무를 다하였다. 그래서 3월을 성 요셉 성월로 정하여 의인(義人)이며 신앙인의 모범인 성 요셉의 덕을 기리고 본받는 것이다.

교구 소식

천주교 전주교구 레지오 마리아 창설 40주년 기념행사

· 일시 : 5월5일(금) · 장소 : 전주해성고등학교

-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

1. 교구장 춘계 주교회의 참석 : 3월20일~24일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2. 천호 피정 안내 : 3월21일(화) 주제-그리스도인의 참 삶은?, 강사-범석규 신부
3월23일(목) 주제-아버지 뜻대로(마르 14, 36), 강사-신순근 신부
3월26일(일) 세례대상자 피정, 강사-박종근 신부 문의 73-6600
3. 새사제 연수과정 : 3월23일(목) 교구청
4. 성체 분배권 교육 : 3월23일(목) 오전10시 가톨릭센터 3층 강당
5.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95년 제1차 회원 연수 : 3월25일~26일 오후3시30분
나바위 피정의 집, 대상-교구 내 각 본당 사목회장단 및 교구단위 제단체장
6. 장애인 미사 : 군산-매월 첫주일 오후2시, 둔율동 성당
전주-매월 넷째주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별관 1층
7. 전주교구 가톨릭 간호사회 모임 : 3월26일(일) 오전9시 치명자산 성당,
<피정 및 총회 있음>
8. 교도사목후원회원 사순절 1일피정 : 3월20일(월) 오전10시 치명자산 성당, 강사-범석규 신부, 회비-3,000원, 준비물-미사도구, 기도서 <누구나 환영합니다>
9. 성골롬바노 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3월24일(금) 오전10시 덕진 성당
10. 전주교구 레지오 마리아 창설 4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헌혈 : 3월26일(일)
주현동 성당
11. 혼인강좌 : 3월26일(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회비 : 각 10,000원
12. 주부대학 : 3월25일(토) 오전10시 화산동 성당, 주제-음악의 이해,
강사-은희천 교수

요십이 (1125) 김병오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 75-0550

쌍방울 효자 전문점
이 오 환(요한)
양 진 희(아나다시아)
효자 테니스 앞
☎ 222-1723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회
성소 피정 안내**
· 일시 : 3월25일~26일 오후 4시
· 장소 : 예수 고난회 수도원
(광주 일곡동)
· 준비물 : 운동복, 목주, 필기도구
세면도구
· 문의 : (062) 571-5004, 8004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여
최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속성 발모·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동산동 아남제일대리점
T.V·전축·V.T.R
김남태(바오로)
이리시 동산동 동양호텔 옆
☎ (0653) 842-2604~5
54-9504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オルแกน,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 교육 및 연주 지도 상담
동서 관동로 다가교 입구
김태우(알폰소)
☎ 88-7717~8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 모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교졸 이
상의 미혼여성
· 일시 : 3월26일 오후 2시
· 장소 : 삼랑진 본원
· 문의 : (0527) 52-4241, 53-3575
· 준비물 : 신구약 합본성서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사순 제3주일

1. 반회장 임명 : 남노 5반 차영숙(사베라) → 백정희(수산나)
2. 구역방문 안내 : 23일-중노 8반, 24일-중노 9반
3. 엠마오성서 대학 : 매주 화요일 전 10시, 사랑방
4. 여성단체 임원 피정 : 20일 전 9시30분, 센터
5. 아치에스 행사 : 25일 후 2시 * L.M 전단원 참석바람
6. 유아 세례 : 25일 후 3시(사무실에 신청)
7. 12월 영세자 첫교백 : 26일 후 3시
8. 비품구입 특별헌금 신입 : 노인석(벨라도) 100만원, 윤광섭(요왕) 박종용(레미지오) 김태영(실비노) 최철영(아우구스티노) 각 20만원, 박기주(도민교) 배기창(요셉) 각 10만원, 박귀남(모니카) 최정남(세실리아) 홍성호(펠레스티노) 각 5만원, 심덕순(도미카) 4만원. * 소계-219만원 * 누계-757만원
9. 봉헌액 : 익명, 최병선(시프온) 각 100만원, 유해란(가타리나) 30만원, 박인석(아우구스티노), 박기주(도민교), 배기창(요셉), 이광호(안토니오) 각 10만원, 최정남(세실리아) 5만원, 노향옥(막달레나), 변태공(스테파노) 각 3만원, 최삼봉(비오), 문예순(세레나) 각 2만원. ※ 누계 : 289만원.
10. 모임 : ①대견회(오늘 장엄미사 후) ②제대회(22일 어머니미사 후) ③빈첸시오회(23일 전 10시30분) ④꾸리아(26일 천사의 모후-장엄미사 후, 자비의 모후-후 2시)
11. 금주 청소 : 동진2, 중노1반, 차주 청소 : 중노2, 중노3반
- 지난해 봉헌금 : 1,005,510(1,000,000)원
- 교무금 : 1,339,0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송년홍
사목회장 황길평

1. 십자가의 길, 사순절 신앙강좌 : 금요일 오후 7시
(전신자 참여바람)
2. 축! 명영 정승현 요셉 본당신부님 :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식 : 오늘 공식미사 후)
3. 아치에스 행사 : 21일(화) 오전 10시, 단원, 협조단원 꼭 참석 바랍니다.
4. 병자 판공성사 : 24일(금) 오후 2시(병자계신 가정에서는 사무실에 신청바람)
5. 유아 세례 : 25일(토) 오후 6시반
6. 빈첸시오회 : 25일(토) 오전 10시
7. 축! 복자성당 30년사 편찬위원회 발족
8. 부활 판공성사 : 28일(화) -다가동, 고사동, 29일(수) -태평동, 기타동, 30일(목) -진북동, 31일(금) -중앙동, 완안동, 4월1일(토) -학생, 직장안, 평일-오전 10~12시, 오후 7시~9시, 토-오후 3~5시, 7~9시
9. 복자신협 남·여 직원 모집 :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신협(☎88-4404)에 문의 바람.
- 성당 청소 : 25일(토) 겸손하신자의 모후Pr., 셋별Pr.
금주 전례 : 해설-허정식, 독서-이갑규 부부.
봉헌-장현상 가족
차주 전례 : 해설-오교성, 독서-육경수 부부.
봉헌-이준철 가족
- 지난해 봉헌금 : 638,500원 □ 교무금 : 743,500원

* 상 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복실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사순절은 회개와 보속, 그리고 은총의 시기입니다.

1. 모임 : ①새영세자 모임-공식미사 후
②성모회, 자모회, 성가대-다음주일
③울뜨레아-25일(토) 저녁미사 후
2. 유아 영세 : 다음주일, 3. 요셉회 꽃동네 방문 : 4월3일(월)
4. 사순절 산행 : 4월5일(수) 영암 월출산
5. 구역 판공성사 및 미사 : 21일(화) -의암
22일(수) -마치, 수월
23일(목) -서당, 24일(금) -공기
6. 축! 혼인 : 26일(일) 12시30분, 덕진성당
신랑-조덕형(요사택) 신부-강순자(마리안나)
7. 금주 청소 : 사랑하을 어머니Pr.
8. 차주 청소 : 황금의 궁전Pr.
9. 금주 전례 : 해설-이춘봉, 독서①장덕용 ②이순자
봉헌-박귀철씨 부부
10. 차주 전례 : 해설-김영신, 독서①박귀철 ②김급자
봉헌-황대호씨 부부
- 사순절 신앙생활 실천
1. 기도생활-일상기도,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기도
2. 전례생활-성체조배, 성시간 및 강복, 매일미사 참여
3. 회개와 보속-화해성사(교백) 1일1선(자선과 사랑 및 선행실천)
4. 크기와 재계-단식(성금요일) 금육(사순절 매 금요일)
5. 성서 및 신심서적 읽기-요한복음 및 교회사적 1권 이상
- 지난해 봉헌금 : 359,040원 □ 교무금 : 242,000원

* 서희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1. 모임 안내 : 아츠에스 행사-오늘 오후 2시, 장소-강당
반장회-다음주 공식미사 후, 장소-성당
2. 반미사 안내 : · 12, 13, 14반-21일 화요일 오후 2 : 30분, 장소-김호순(히아친다)대 ☎83-7468
· 15, 16반-22일 수요일 오후 2 : 30분, 장소-사목회장님택 ☎84-2863
· 26반, 영동APT A.B반-23일(목) 오후 8시, 장소-영동APT 306호 주아네스택 ☎83-8074
· 17, 18, 19반-24일 금요일 오후 2 : 30분, 장소-박선주(발라라) ☎84-5121
3. 판공성사 : 미사 전후에 보십시오.
성전 의사 헌금 내신분 : 유대회(베드로) 1,000,000, 성가신협 500,000, 신부님 300,000, 김용수(다니엘) 100,000, 양남래(세실리아) 외 15명 585,000원
신일자 : 최혜임(사라) 500,000, 김한기(안드레아) 300,000, 신오철(요한) 250,000, 강기호(요셉) 250,000, 김종화(마르코) 250,000, 염금옥(마리아) 100,000, 안재구(안당) 100,000, 김보임(수산나) 50,000, 계 : 2,465,000원, 누계 : 7,385,000원
- 지난해 봉헌금 : 953,200원 □ 교무금 : 656,000원

* 전 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김영태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사순 제3주일

- 치명자산 산상미사-오전 5시30분
십자가의 길 기도-매일 저녁 6시30분(성당)
1. 금주 : ①건전교리(공식미사 후)
②요셉회 정기총회(공식미사 후)
③바비의 성모 꾸리아(후 2시)
④청년연합회(후 8시)
 2. 교구 여성단체 정기총회 및 임원피정 : 20일(월) 오전 10시 가톨릭센터 3층
 3. 부활 판공성사 : 평일 저녁미사 후(성당 고백소)
 4. 성모회 : 20일 오전 6시 5. 성모회 : 21일(화) 오전 11시
 6. 배에따회 : 22일(수) 오전 11시
 7. 성지회 : 24일(금) 오후 8시
 8. 레지오 마리아 아치에스 행사 : 25일(토) 오후 3시
 9. 차주 : ①교무금 납부주일
②혼인강좌(전 9시30분, 센터)
③차량축복식(공식미사 후)
④성마리아 꼬미시움(후 2시)
 10. 본당 사무원 모집 : 사무실에 문의(84-3222)
 11. 4월부터 주일 오전 9시미사-중·고학생미사
오후 5시미사-일반미사로 변경됩니다.
 - 지난해 봉헌금 : 2,303,77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감상근

- ◎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라" (마태 4,17)
1. 아치에스 행사 : 장소-치명자산 26일 후 2시 전통성당 집결
 2. 교도사목후원회원 사순절 피정 : 20일 10시~4시 회비-3천원, 치명자산 성당, 강사-범석규(마지아) 신부님
 3. 평협연수(사목회피정) : 25일 15 : 30~26일 15 : 30 나마위
 4. 여성단체 임원 피정 및 총회 : 20일 전 9 : 30 센터 3층
 5. 8구역 반회장 단합 모임 : 23일 12시 금산사
 6. 반미사 : 오전 10시30분, 오후 3시, 저녁 8시, 21일 전 3-2 후 4 -1 저녁 5-2 23일 전 4-2 24일 전 4-3 후 6-4 저녁 5-1 25일 전 6-6 이겨자와 냉담자 상황을 보고.
 7. 예비자 모집 : 4월2일까지 수녀님께 접수하세요.
 8. 성소 후원의 날 : 오늘 공식미사 후, 후원회원 가입 환영
 9. 회의 : ①임마누엘, 한빛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③성모회-22일 어머니미사 후 ④울뜨레아, 몸소회-26일 공식미사 후
 10. 혼인강좌 : 26일 전 9 : 30 센터, 회비-각 만원
 11. 전입을 환영합니다 : 코요롱APT 김금숙(엘리사벳) 12/806 ☎223-4422 조경순(요셉파나) 2/505 ☎224-3872 이영희(엘리사벳) 9/1102 ☎222-0931 국경옥(라파엘라) 9/1801 ☎225-6341 신효순(안나) 6/503 ☎225-0927 최병무(돈보스코) 12/103 ☎224-8206 한옥순(바울라) 6/1102 ☎225-5288 손상울(올리아) 1/1704 ☎221-6724 윤성복(토마스 아퀴나스) 극동A가/703 13! 6369
 - 지난해 봉헌금 : 1,112,000원 □ 교무금 : 1,383,430원

성서교실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7시30분 전통성당 교육관, 사도들의 서간·요한묵시록 강의